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40호 HYUNBULNEWS.COM 2025년 7월 23일(음력 6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불교계는 7월 16일 서울 구 일본대사관 평화로 소녀상 옆에서 '제170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주관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광복 80주년 '수요시위'…"日, 사죄하라"

글 · 사진=김내영 기자

광복 80년이자 한일수교 60년이 되는 올해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제 생존자는 단 7명뿐(2025년 2월 기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보듬고 절규가 희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도 거리에서는 진실을 알리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7월 16일 서울 구 일본대사관 평화로 소녀상 옆에서 '제170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주관했다. 이날 수요시위는 광복 80년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힘을 보태고자 사노위를 비롯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성평등불교연대·불교환경연대·실천불교승가회·신대승네트워크·대한불교청년회·정의평화불교연대 등 불교단체들이 공동주관으로 대거 참여했다.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했으며, 착한목자수녀회와 영원한도움의수녀회에서도 자리를 함께했다.

사노위원 지철 스님은 인사말에서 8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은 조금도 진전이 없다고 개탄했다. 지철 스님은 "피해자의 숫자가 줄고,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거나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며 "돌아가시거나 살아계신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 맺힌 절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사명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지철 스님은 일본 정부를 향해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 사과 없는 한일관계는 관광객 숫자로 위장될 수 없음을 양국 정부는 명심하라"며 조속한 사과를 촉구했다.

조계종 사노위 · 대불련 등 불교단체
7월 16일 제1709차 시위 공동주관
"할머니 한 맺힌 절규 조속히 해결"

이어 불교계 단체들이 차례로 발언에 나서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실천불교승가회 공동대표 일문 스님은 올바른 역사를 세우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일에 불교계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문 스님은 "누구보다 먼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에 앞장섰던 불교지만 오랜 역사만큼 진실로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불교단체가 함께 모여 구호를 외쳤던 만큼 불교가 신뢰를 회복하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힘 모아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주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일본군 성노예제 패해자가 겪은 참혹한 현실은 전쟁과 식민 지배가 어떻게 여성의 삶을 수단화하고 파괴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욕심과 탐욕으로 짓밟은 인간의 존엄에 대해 진실된 마음으로 반성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의 고통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책임을 외면하는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진심 어린 사죄와 법적 책임으로 악연의 인연고리가 해소될 때까지 기억하고 배우고 연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옥복연 성평등불교연대 공동대표도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법적 책임과 진정한 사죄에 나서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 세대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핵폐수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며 "과거 역사를 참회하지 않고 또다시 핵폐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범죄를 서슴치 않는 일본 정부는 당장 핵폐수 해양투기를 중단하고 자국 내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할 것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세계평화에 앞장설 것 △한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 원칙을 한일외교 기준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 △한국 정부는 역사 부정과 혐오테러에 국가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날 사노위는 피해자 할머니와 희생자를 위한 추모기도를 통해 시민들과 역사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또 개똥이 어린이예술단의 '꼬마와 할아버지' '안아주기' 등의 노래 공연으로 인권과 존엄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광복절, 전국 사찰서 '국태민안' 기린다

종단협, 7월 17일 이사회서 결정
회원 사찰 8월 15일 오전 10시
33회 타종 · 공동선언문 발표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선열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기념법회가 봉행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7월 17일 서울 조계사불교대학 2층 회의실에서 '불기 2569(2025)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광복절 기념법회 계획을 논의했다. 일제강점기 국난극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상생과 국민화합을 구현하자는 취지다.

기념법회는 8월 15일 오전 10시, 회원종단 소속 전국 사찰에서 33번의 타종으로 시작된다. 이후 사찰 상황에 따라 순국선열에 대한 헌향, 추모묵념, 광복절 의미와 평화통일 염원하는 법문, 불교계 공동선언문 낭독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광복 80주년 공동선언문도 채택됐다. 공동선언문에는 "광복 80년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 화합과 인류공영에 기여하고자 쉼없이 정진하겠다"는 불교계의 다짐이 담겼다.

이와 함께 종단협은 하반기 주요 일정도 확정했다. '제25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는 10월 18~20일 중국 북경 광제사에서, '한국불교지도자 몽골불교문화교류 사업'은 9월 16~20일 몽골 울란바토르 간단사 일대에서 진행된다.

특히 저출산, 종교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교 진흥 학술 세미나는 11월 중순에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사회 현상과 불교 현황을 분석해 특성 있는 포교전략을 기반으로 실질정 방안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삼론종 총무원장 변경에 따른 임원·감사 변경 △정관 정비를 위한 개정위원회 구성 △전국 사찰 신도 수 현황 조사 등도 함께 논의됐다. 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집중호우에 따른 철저한 홍수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앞서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다사다난했던 상반기는 대통령 선출과 새 정추 출범 등 중대한 전환기가 있었고, 불교계도 주요 행사와 변화로 분주한 시기를 보냈다"며 "하반기에도 종단협 차원의 많은 일이 예정돼 있다. 불교 중흥 원력으로 종무에 매진해 사회 곳곳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법향이 널리 퍼지길 간절히 발원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이사장 상진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도 '제3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차 청소년교류대회 개최', '제17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 개최'를 안건으로 다뤘다. 김내영 기자

AI로 되살린 스님 독립운동가-① 비구 스님들의 독립운동 11면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 폭압에 맞서 독립운동에 나섰던 스님들의 활동을 조명한다. 첫 번째 순서로 비구 스님 일곱 분의 행적을 소개하며 스님들의 삶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AI(인공지능)로 복원한 현대적 이미지도 함께 싣는다.

특별기고-기독교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멈춰라 12면



지난 6월 20일 광주 남구, 대구 중구 등 8개 지자체는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를 공식 발족하고 기독교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한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이 특별기고를 통해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짚는다.



불교로 읽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② 5면

한국관광학회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대한불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조 계 종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2025년 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공모전 9.1-10.31

참가기준
참가 자격 일반인, 대학(원)생, 연구자(내국인, 외국인),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에 관심있는 자
공모 부문 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 주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의 현대적 가치와 정신·관광 자원으로서의 지속가능성 탐색 관련 자유 주제
참가 형태 개인 또는 팀(공동연구는 최대 4인까지 허용)
참가 방법 논문 및 관련 양식 작성해서 이메일(tosok.kbc@gmail.com)제출
진행 방법 논문 제출 후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추진일정
사전접수 8월 31일까지 → 논문접수 9월 1일 ~10월 31일 → 1차심사 결과발표 11월 2주(11/9) → 본선 발표 및 우수논문 시상식 11월 3주(11/21)

논문시상

구 분	주제 부문별 시상 수		시상금	시상금 합계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대상	1팀	1팀	300만원	600만원
최우수상	1팀	1팀	150만원	300만원
우수상	3팀	3팀	80만원	480만원

※ 수상 기준 미달 시 수상자가 없을 수 있으며, 시상 내역이 달라질 수 있음
※ 공모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논문게재 확인서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제출해야 함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기획팀 : 02-2031-2026

접수·문의 한국관광학회, 2025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공모전 운영팀
이메일 : tosok.kbc@gmail.com
한국관광학회 한국불교문화사업단